

위기의 시대, 미주 한인교회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다

지난 6월 2일(화) LA 코리아타운 아로마센터 5층 더윈 이벤트를 통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 주최로 Church Answers 대표 샘 라이너 목사를 초청해 ‘미주 한인 교회 진단과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마다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각 세션은 ‘위기에 선 교회’, ‘정체에서 성장의 기대로’, ‘이민교회의 현실과 기회’, ‘AI와 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는 송금관 목사(제56대 남가주 교협 부회장)가 맡았고, 김은목 목사의 환영사와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의 기도 후 첫 세션이 시작됐다.

“어떤 교회도 죽을 필요는 없다” 제1강에서 샘 라이너 목사는 ‘벼랑 끝에 선 교회: 향후 10년을 좌우할 핵심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샘 라이너 목사 초청 '미주 한인교회 진단과 미래' 세미나가 개최됐다. ©기독일보

시지를 전했다. 그는 24세 때 센터 키 시골, 성도 6명의 작은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던 경험에서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야외 화장실을 사용하던 그 교회는 재정도 거의 없고, 예

어컨도 없는, “사람 수보다 문제 수가 더 많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 6명의 교회가 40명 규모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경험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어떤 교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며 “모든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두 가지 확신을 이날 강의 전

체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제시했다. 북미 교회, 정체와 감소의 구조적 문제

이어서 북미 교회의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약 80%의 교회가 정체 상태이거나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문화권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전역, 다양한 지역과 문화권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systemic) 문제”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 교회들은, “매우 연약하면서도, 이상할 만큼 끈질기다”며, “손톱으로 벼랑 끝을 붙잡고 있는 교회”라고 표현했다.

북미 교회 쇠퇴의 원인: 전도의 상실
 라이너 목사는 정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북미 교회가 쇠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복음 전도’의 상실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전도를 강조하고 실천하는 교회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디 한기자 → 2면에서 계속

캐나다 복음주의자 73%, 원죄 교리와 상충된 믿음

캐나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상충되는 신앙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에 위치한 기독교 단체 리고니어 미니스트리(Ligonier Ministries Canada)는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학 현황 조사(The State of Theology)’로 불리는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복음주의 응답자의 73%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 없이 태어난다”는 진술에 동의했다. 또한 60%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죄를 짓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본질적으로

로 선하다”는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캐나다는 “이 결과는 원죄 교리와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깊이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조사에서는 또 복음주의 응답자의 66%가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지만 인격적 존재는 아니다”라는 진술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93%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고 답해 상당한 모순을 드러냈다.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캐나다 이사회 의장인 크리스 라슨(Chris Larson)은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들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잘못 이해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성경적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와 모순되는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슨은 “잘못된 신학은 아무리 진지하게 믿고 있더라도 혼란과 타협, 심지어 영적 해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으며, 총 3,005명이 참여했다. 신뢰수준 95% 기준 오차범위는 ±1.9%다. 이미경 기자

러빙워십, This Is RUACH 8월 콘서트 개최

크리스천 문화사역 단체 러빙워십(Loving Worship, 대표 조셀리 목사)이 오는 8월 1일과 2일 이틀간 Novo Theater에서 찬양 콘서트 ‘디스 이즈 루아흐- 더 보이스’(This Is RUACH - The Voice)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음악과 진솔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과 음성을 함께 경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최 측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고, 참석자들이 복음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콘서트에는 가수 소향을 비롯해 선, 조혜련, 드러머 리노 등이 출연해 음악과 간증, 토크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강준민 목사, 국윤권 목사, 고창현 목사, 박은성 목사, 구봉주 목사, 러빙워십 대표인 조셀리 목사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러빙워십은 “이 콘서트가 하나님의 숨결과 음성을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웃음과 감동, 회복을 통해 관객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콘서트가 하나님의 열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 새겨 두신 은혜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나누는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교회및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신청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btssolar@gmail.com www.btssolar.com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링시
 뱅크링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영)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제마 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나눔과섬김의교회 “기도와 금식 가운데 새 처소 허락”

나눔과섬김의교회가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 30분, কমিশন 건물 1층에서 성전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엘리야 김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성경봉독은 케서린 정 목사가 요한계시록 7장 9~12절을 봉독했으며, RPCA 중창단이 특별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렀다. 이어 কমিশন 대표 이재환 선교사가 ‘성도의 영원한 꿈과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축가는 소노로스 싱어즈가 불렀다.

기도와 금식으로 허락받은 새 성전

감사의 인사를 전한 서진건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 수석부목사)는 교회 이전 과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서 목사는 “6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했고, 성도들도 3~4일 동안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다시 허락해 주셨다”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며, 섬김의 정



나눔과섬김의교회가 কমিশন 건물 1층에서 성전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일보

신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진 목사는 축사를 통해 “나눔과섬김의교회의 분위기가 참 좋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을 통해 소생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신학교 후학들을 길러온 교회로서 앞으로도 복된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믿으며 축하드린다”

고 했다.

엄규서 목사는 교회 이름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며 초대교회 정신의 회복을 당부했다. 그는 “오늘 이전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이름 그대로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

러 오셨다”며 “교회가 이름값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요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 교회 또한 본질에 주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서영수 박사는 “한의학에서는 기혈이 잘 통하면 병이 없다고 말한다. 막힌 것이 뚫리고 통하게 되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며 “나눔과섬김의교회가 영적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최고의 종합병원이 되어 많은 신자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준 목사는 “엘리야 목사님은 눈물이 많은 목회자이신데, 새롭게 이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를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확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감사예배에는 남가주 교협과 남가주한인목사회, RPCA 교단 관계자 및 지역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성전 이전을 축하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장학생 모집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장학위원회가 오렌지카운티 거주 학생 대상으로 2026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당사자 또는 부모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현재 대학(college or university)에 재학중이거나 올 가을학기에 입학이 확정된 고교 졸업반이면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별된 장학생에게는 일인당 \$1000-2000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6월 26일(금)까지이다.

신청서류는 www.lagunacurch.com에서 장학제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의: www.lagunakumc@gmail.com

→ 1면 기사 <위기의 시대, 미주 한인교회>에 이어서

과거 여러 전도 프로그램들이 폐지된 이후, 전도의 습관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교회에서 나타난 변화도 통계로 짚어 보았다. 라이너 목사는 “지난 25년 사이 미국 교회의 중간 교회 규모(median church size)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2000년 평균적인 교회가 약 137명 규모였다면, 지금은 70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여전히 필요하다” ... 교회 밖 사람들의 인식

라이너 목사는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소개했다. Church Answers가 진행한 미국 비신자·비교회인대상 연구에 따르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약 60%는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지역사회의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그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동네에 있는 실제 교회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 라이너 목사는 “비신자들은 ‘교회라는 개념’에는 호의적이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체적인 교회들에 대해서는 신뢰와 호감도가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교회가 오늘날 사회에서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 느끼는 반면, 오히려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의 사회적 필요성과 관련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신뢰를 회복하려는 교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계를 넘는 교회, 성장 기대의 문화를 세우라

제2강 ‘교회의 문화를 정체에서 성장의 기대감으로 전환하는 방법’에서 1강에서 제시된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도록 디자인하셨다”며, 지정학적·인종적·언어적·문화적·세대간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들은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국경을 넘는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집에서 이웃집으로 걸어 나가는 선교사’라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누군가를 두셨다면, 그가 누구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도전했다.

성장을 위한 7가지 방법

라이너 목사는 정체된 교회 문화를 ‘성장의 기대가 있는 문화’로 바꾸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 첫째, 성공을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인 숫자나 결과 지표보다, 복음 전도를 위한 시도와 노력 같은 ‘선행 지표(leading indicators)’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 둘째, 작은 변화의 신호를 크게 축하하라고 권면했다. 누군가 전도를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그 자체를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기꺼이 헌신하는 소수와 함께 일하라”고 말했다. 단 두세 가정, 서너 명이라도 자원하는 이들과 먼저 시작하면, 성장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때 뒤늦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 넷째, 지속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리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야구나 축구 코치가 연습에 꾸준히 나올 것을 요구하듯, 영적 성장에도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며 “한 달에 한 번 500명이 모이는 것보다, 매주 100명이 꾸준히 모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말했다.

◆ 다섯째, 다음 세대 사역에 재정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라이너 목사는 “가장 어린 세대에 조정을 맞춘 사역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많은 교회가 어린이·청소년 사역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여섯째, ‘환대(hospitality)’를 작은 교회의 강점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사람들은 다저스 스타디움을 가면서 환대를 기대하지 않지만, 작은 교회는 큰 교회보다 더 따뜻한 환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일곱째, ‘선물 주기 전략(Gift-Giving Strategy)’을 통해 성도들이 이웃에게 건넨 작은 선물을 준비하게 하라고 했다. 이 작은 선물이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너 목사는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말씀을 인용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발을 움직여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체되어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결국 불순종하는 교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머리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발을 움직이십시오”라고 한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힘주어 권면했다.



제2회 풀러신학박사 동문회

선교음악회

하늘의 노래, 열방을 향하다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이다”

2026 / 6 / 14 (주일) 5:30 pm

사랑의 빛 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Tel. (626) 744-9191

협력단체 



콘서트 출연진

주관_ 풀러신학대학원 선교학박사 동문회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DGL Alumni Association

문의_ 풀러신학박사 동문회 회장 Sunny Kim 박사 (323) 833-9090
이훈우 박사 (626) 437-0045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26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는 1일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2026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이병구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송주 교무학장 기도, 이수영 교수의 성경봉독, 한기홍 이사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 박사 후딩식, 우수상 시상, 공로상 수여, 권면과 격려사, 축사, 졸업생 답사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최규남 총장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봉독한 뒤 졸업생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총장은 "오늘 학위를 받지만 학위 자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직분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2026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기독일보

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제자를 삼는 열매, 교회를 섬기는 열매가 주렁주

렁 맺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격려사를 전한 김대섭 목사(총회 총무)는 "GMU가 복음주의 가치를 지키며 세계 선교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에 감사한다"며 "졸업은 누군가의 말처럼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에는 기대

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다. 사역의 자리에서 거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홀로 서 있어야 하는 시간도 찾아올 수 있다"며 "그 자리에서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단계를 기대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정호 목사(동문회장)는 "밤잠을 설치며 과제를 수행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이는 목회지로, 어떤 이는 사역지와 선교지로 나아갈 것이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졸업생 대표는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축도는 LOGOS 신학교 총장 벤슨 왕 목사가 했으며, 교수 및 졸업생들의 퇴장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토마스 멩기자

“각 가정의 예배 이야기가 온 교회를 살렸습니다”

‘올해의 가정예배상’ 등 5개 부문, 총 26명 수상

한인 이민 가정의 신앙 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목표로 개최된 '2026 가정예배 공모전'의 시상식이 5월 22일(금) 오후 7시, 동부 사랑의교회에서 가정예배 컨퍼런스와 함께 성황리에 열렸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GBC)과 PCCE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총 26명의 수상자 가운데 타주 및 북가주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수상자들을 제외한 14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참가자들의 가정

예배 레시피를 한 권에 담은 소책자도 배포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모전은 순위를 매기는 경쟁 방식 대신, 가정예배에 참여한 의미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상 방식을 택했다. '올해의 가정예배상' '믿음의 씨앗상' '은혜의 이야기상' '다음세대 동행상' '가정예배 실천상' 등 5개 부문에 걸쳐 총 2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부 컨퍼런스에서는 동부사랑의교회 우영화 목사가 가정예배 특강을 인도했다. 그는 가정예배가 기록한 기억을 형성하는 신앙의 공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2부 시상식에서는 임성진 총장(



공동주최기관 대표 및 수상자 가족 단체 사진

월드미션대학교)이 직접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들은 무대에 올라 간결하면서도 진솔한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의 가장 뜨거운 순간은 권시은 학생이 들려준 가정예배 간증이였다. 어린 나이임에도 가정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으며 큰 감동과 도전을 선사했다.

앞으로의 계획— 52주 가정예배 운동, 협력교회로 확산

동부사랑의교회는 월드미션대학교 PCCE와 함께 2024년부터 '기록한 기억의 공간, 가정'이라는 주제로 52가정 이상이 52주 동안 가정예배를 완주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PCCE는 각 가정이 매주 가정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배 가이드를 제공하며,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길을 열어가도록 돕고 있다.

소그룹 사역과 정신건강 무료 워크숍 개최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 사역 센터 (<https://sgmc.wmu.edu/Home>)가 오는 6월 11일(목)부터 8주간 "소그룹 사역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무료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월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경준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실시간 Zoom 강의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리더 자신의 정신건



김경준 교수

강을 먼저 돌아보고, 나아가 소그룹 구성원들의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워크숍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 4주 동안에는 소그룹 리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을 갖는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과 정체성,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건강한 경계선 세우기, 깨어짐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등 정신건강 회복과 성장을 위한 주제들이 다뤄진다.

후반부 4주 동안에는 소그룹원들을 돕기 위한 돌봄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성육신적 경청과 질문 등 코칭의 기초 기술을 비롯해, 슬픔과 상실을 포용하는 방법, 위기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회복을 돕는 실제적인 접근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마지막 주에는 성도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가 소그룹 안에서의 코칭이나 상담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지, 신경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로 마무리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자에게만 Zoom 참여 링크가 개별 안내된다. 등록은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 사역 센터 홈페이지 (<https://sgmc.wmu.edu/>)에서 가능하다. 김민선 기자

주안예교회 13주년 부흥집회

주안예교회(이충환 목사)는 오는 6월 5일(금)부터 6월 7일(주일)까지 송민호 목사(토론토 영락교회 은퇴 목사)를 초청해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창립 13주년 기념 부흥집회 & 감사예배를 개최한다.

강사로 서는 송민호 목사는 2004년 토론토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선교적 교회 사역을 펼쳤다. 틴데일 신학교(Tyndale Seminary) 겸임 교수로 있다.

주안예교회 :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제3회 세대 통합 목회 세미나

주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목회의 방향과 실재를 함께 나눕시다." (골2:28)

1.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세우는 목회 (엡 1~2장, 뱀전2:9)
2. 하나님 뜻을 품고 세워 가는 목회 (마28:19~20)
3. 삼대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회 (딤후1:5)
4. 오직 성경으로 삼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창~수)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5. 오직 성경으로 삼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창~수)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6.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누리는 부족함 없는 목회(시23편)



강사: 김경준 (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교회 노회장

- 날짜 : 2026. 6.18(목) ~ 6.20(토) 2박 3일
- 장소 : The Lighthouse Christian Retreat Center 313 Canvasback Rd, Big Bear Lake, CA 92315
- 등록마감 : 6월 15일(월)까지
- 등록 및 문의 전화 : 213-407-4524(김갑선 목사), 213-590-9885(김영호 목사) 213-739-0403(기독일보)
- 주최 : 3대 동일신앙 연구소 미주법인, 기독일보



건강한 가정 세우기 세미나

주제: "말씀 위에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 (시128:1~3)

1. 모두가 어렵다고 말할 때 길을 여는 믿음(삼상1~3장)
 2.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엡1~2장, 뱀전2:9)
 3. 말씀으로 세워 가는 성경적 가정교육(신6:4~9, 요13~17장)
 4.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는 믿음의 대화(약1:5)
- 가정의 고민과 신앙교육의 실재를 함께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



강사: 김경준 (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교회 노회장



- 날짜 : 2026. 6.27(토) 오전10:00 ~ 오후 3:00
- 장소 : LA 소망선교교회 (3511 W. Olympic Blvd, #308 LA, CA 90019)
- 등록마감 : 6월 20일(토)까지
- 등록 및 문의 전화 : 213-407-4524(김갑선 목사), 213-590-9885(김영호 목사) 213-739-0403(기독일보)
- 주최 : LA 소망선교교회



헨리아펜젤러대학교 제26회 학위수여식

헨리아펜젤러대학교(총장 임봉대 목사)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나성동산교회에서 개교 30주년 감사예배 및 제26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직전 총장 정인호 목사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제목으로 학교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30주년 기념예배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학위수여식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라며 "과거와 미래가 현재를 통해 만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의 과거에 대해 "헨리



헨리아펜젤러대학교는 개교 30주년 감사예배 및 제26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아펜젤러대학교는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복음 전도와 제자 양성 정신에서 시작됐다"며 "미주감리교신

학대학으로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학교 역시 제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의 현재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필요로 하신다는 증거"라며 "학교의 규모나 재정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미래에 대해 "진정한 미래는 건물이나 재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때 학교의 미래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학교는 끝까지 제자를 만드는 사명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종현 목사는 졸업생 답사를 통해 "학업과 목회를 병행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교수진, 동료들의 도움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목회학석사, 목회학박사 과정 졸업생 5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토마스 맹 기자



ANC 온누리교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요리 축제를 개최했다.

ANC 30주년 사랑의 식탁 Family Cooking Festival

5월 31일(주일) ANC 온누리교회 (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특별한 요리 축제"가 열렸다.

주일 3부 예배 후 800여명의 성도들과 야외광장에 마련된 경연장에 19팀(2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 전 11시 40분부터 피자, 떡볶이 등 간식을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바운서, 페이스 페인팅, 솜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제공되었다.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요리 경연을 시작되었고 2시부터 시식과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는 두그룹의 평가단으로 심사되었다. 전문 평가단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각 주제별로 수상팀을 선정했다.

은혜상은 '키노아 샐러드'를 선보인 숯불다락방(9조), 가족상은 '천국의 맛/샤브샤브 배추롤'을 선보인 SK Family(19조), 맛 상은 '떡갈비와 빈대떡'을 만든 임마누엘

다락방(12조), 추억상은 '추억 한상 떡갈비와 은혜 전복밥'을 선보인 PST Mom's Table(3조), 공동체 상은 '타이그린커리, 파파야 샐러드'를 만든 4조에 돌아갔다.

150여 명으로 구성된 청중시식평가단은 16조, 산클C 다이어트는 내일 팀(삼겹살 김치볶음밥), 9조, 숯불다락방(키노아 샐러드), 4조, 공동체 [응답다락방+배가다락방] (타이그린커리, 파파야 샐러드)을 수상팀으로 선정했다. 조셀리 기자



연세대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

'2026 연세대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가 남가주 지역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지난 5월 30일(토) 리버사이드 소재 오크 퀴리 골프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회장 권기숙)와 연세 글로벌 CEO AMP 동문회(회장 폴박)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남가주 전역에서 총 144명의 동문이 대거 참석해 역대급 규모를 기록하며 남가주 연세 동문 사회의 탄탄한 결속력을 입증했다.

대회가 치러진 오크 퀴리 골프클럽의 수려한 경관과 완벽한 코스 관리 덕분에 참가자들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으며, 라운딩을 통해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기록들이 쏟아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대회 당일에는 '출인원'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시상식에서는 영예의 메달리스트와 챔피언을 비롯해 근접상, 장타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동문들에게 상패와 부상이 수여됐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래플(추첨) 경품 행사 역시 풍성하게 마련되어 참석한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권기숙 남가주 동문회장과 폴박 연세 글로벌 CEO AMP 동문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모교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동문애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동문 사회의 단합된 힘과 에너지가 앞으로의 동문회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와 연세 글로벌 CEO AMP 동문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미주 한인 사회 내 연세인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2026 NICHÉ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센터메디컬그룹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힘!

그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그룹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생활 문화 활동 활성화



문의연락 | (888) 847 - 3098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희망의 신학’ 위르겐 몰트만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이전 1010호에 이어서]

또한 그는 몰트만 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십자가 신학을 언급했다. 김 박사는 “몰트만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 이해를 넘어 십자가의 계시 안에서 인간과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을 제시했다”며 “하나님의 전능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고 했다.

이어 몰트만이 서구교회의 삼위일체론 재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민주주의와 공동체적 평화의 토대를 제공한 중요한 신학”이라며 “인간과 피조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신학적 기반이 됐다”고 했다.

평화신학과 생태학적 신학 역시 몰트만의 핵심 유산으로 소개됐다. 김 박사는 몰트만을 “20세기 후반 평화신학의 사상적 스승”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신학이 유럽 평화운동과 역사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또 “몰트만은 세계교회가 생태와 피조물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바라보도록 이끈 생태학적 신학의 선구자였다”며 “그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거대한 생태신학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메시아적 그리스도론과 통전적 성령론, 생명신학, 만유구원론 등에 대해서도 발표가 이어졌다. 김 박는 “몰트만이 교회 중심의 전통적 그리스도론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역사 변혁을 강조하는 메시아적 그리스도론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후기 몰트만 신학의 핵심으로 생명신학을 언급하며 “그는 죽음의 힘에 저항하는 영성을 강조했고,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 박사는 몰트만이 생애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나는 죽는 순간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가르침은 몰트만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희망의 신앙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영한 박사(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는 논평에서 “몰트만은 계시의 역사성이 약화된 시대 속에서 종말론적 희망을 신학의 중심 주제로 제시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대표작 『희망의 신학』(1964)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서 다가오는 약속과 성취의 사건으로 이해하며 종말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몰트만의 희망신학은 당시 아프리카·남미·아시아의

사회변혁 운동과 한국 민중신학에 신학적 기반을 제공했다”며 “마르크스주의적 유토피아 혁명론에 맞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독교적 희망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1972)을 언급하며 “몰트만은 세상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도 인간과 함께 고난받으신다는 십자가 신학을 통해 항의무신론에 응답했다”고 평가했다. 또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1980)에 나타난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 구조를 비판하고 공동체적 관계성을 강조한 공헌이 있다”고 했다.

생태학적 창조론과 관련해서는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1985)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상호내재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신학적 지평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몰트만은 전쟁과 고난, 생태위기 속에서 인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 위대한 신학자”라고 했다.

◆ “오늘의 위기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몰트만의 희망”

‘불멸의 희망을 외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남긴 위대한 신학적 공헌’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신건 박사는 먼저 몰트만을 “20세기 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세계적 신학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사회에 세속화 신학과 ‘하나님의 죽음’ 신학이 확산되던 시대 속에서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미래성과 종말론적 희망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몰트만의 삶 자체가 희망의 신학을 형성한 배경이었다고 강조했다. 1926년 독일 함부르크의 무신론 가정에서 태어난 몰트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수용소 생활을 경험했다. 이 박사는 “몰트만은 포로수용소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났고, 특히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친 예수의 고난을 통해 자신을 이해해 주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고 소개했다.

또 “그의 신학은 단순한 이론적 체계가 아니라 전쟁과 절망 속에서 걸어 올린 실존적 신앙 고백이었다”며 “포로수용소에서 경험한 절망 속에서도 그는 부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붙들었고, 그것이 훗날 ‘희망의 신학’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몰트만의 신학이 특정

한 체계나 방법론에 따라 미리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과 현실적 위기에 대한 응답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칼 바르트가 그리스도론 중심으로, 폴 틸리히가 상관관계의 방법을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했다면 몰트만은 시대의 도전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신학을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몰트만 신학의 특징으로 ‘섬세적 근거’, ‘종말론적 방향성’, ‘정치적 책임성’을 제시했다. 그는 “몰트만은 신학이 단순히 교리 체계에 머물지 않고 현실 역사 속에서 책임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다”며 “특히 교회와 신학은 세상의 고통과 억압, 절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몰트만 신학의 중심에 있는 ‘희망’의 개념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몰트만에게 희망은 인간의 낙관주의나 정신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그는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이해했고, 하나님은 인간 앞에서 미래를 열어 가시는 분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몰트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단순한 과거 사건의 설명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 인간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몰트만에게 종말론은 신학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신학 전체를 이끄는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몰트만의 부활 이해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박사는 “몰트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 보았다”며 “부활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몰트만이 십자가 중심 신학이 부활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향을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몰트만은 복음을 단순히 죄 사함의 문제로만 축소하지 않았다”며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극복과 새 창조의 시작이며, 온 세계의 미래를 여는 사건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는 몰트만의 후기 신학에 나타난 ‘죽음 속의 부활’ 이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박사는 “몰트만은 초기에는 전통적 종말론에 따라 마지막 날의 부활을 강조했다”지만, 후기에는 인간이 죽는

순간 영원한 생명 안에서 깨어난다는 방향으로 사상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몰트만의 저서 「나는 영생을 믿는다」를 인용하며 “몰트만은 ‘우리는 죽는 순간 부활한다’고 주장했다”며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이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는 사건이라고 보았다”고 말했다. 또 몰트만이 인간의 부활을 개인의 영혼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우주적 차원에서 이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박사는 “몰트만은 로마서 8장의 ‘피조물의 탄식’을 중요하게 해석하며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새 창조 안에서 회복될 것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게 부활은 단지 인간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만물의 회복이었다”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이 몰트만 종말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한국교회와 한국 신학계에 미친 몰트만의 영향도 언급했다. 그는 “몰트만은 한국인 제자 9명을 길러냈고, 그의 신학은 오랫동안 한국 신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돼 왔다”며 “『희망의 신학』은 한국 신학생들에게 가장 널리 읽히는 신학 서적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날 인공지능(AI), 전쟁,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 속에서도 몰트만의 신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몰트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신학자였다”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만물의 새 창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이 오늘 교회의 세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말미에서 이 박사는 몰트만이 즐겨 인용했던 라틴어 문구 “Dum spiro, spero(숨 쉬는 한 희망한다)”를 언급하며 “몰트만의 신학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숨이 멎더라도 희망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활과 새 창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몰트만 신학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이오갑 박사(강서대학교 명예교수)는 논평에서 “몰트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신학아카데미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김균진 원장을 비롯한 직제자들과 몰트만 박사의 딸 프리드리케 교수까지 함께한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신건 박사의 논문에 대해 “방대한 몰트만 신학을 짧은 논문으로 정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몰트만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희망’으로 파악하고 그의 생애와 사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논문 내용을 요약하며 “몰트만 신학은 성서가 증언하는 종말론적 희망에 의해 추동됐다”며 “몰트만은 포로수용소 생활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희망을 발견했고, 이러한 실존적 경험이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몰트만이 말한 희망은 ‘희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계시는 본질적으로 약속과 종말론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의와 부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몰트만 신학의 핵심 주제라고 정리했다. 이오갑 박사는 논평 말미에서 “종말론적 희망’, ‘실존적 경험’, ‘하나님의 의’와 같은 핵심 용어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개념들이 분명해질 때 몰트만 신학의 특징도 더 잘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폐회 순서로 마무리됐다. 폐회사를 전한 김균진 원장은 신학 연구와 학문적 성취에 몰두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 신앙과 인격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오늘의 신학 현실을 언급하며, 몰트만 교수가 보여준 삶의 태도를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신학 교수들은 신학 이론에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등한시하기 쉽다. 절대 진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 속에서 타인을 배제하거나 교만해질 위험도 있다”며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인간적 욕망에 사로잡혀 참된 신앙심을 잃어버린 비인간적인 인간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명길, 김중연, 김한우,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썬니킴

- 발행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daily.com
-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Loving Worship의 재키 정 간사가 지난 5월 28일, 향년 4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3년의 암 투병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자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남가주의 부흥을 품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하나로 잇는 Loving Worship 문화선교의 길을 열었던 그의 헌신을 오늘도 깊이 추모합니다.

그는 떠났지만 예배는 남았고, 그의 걸음은 멈추었지만 헌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길이 되고, 한 사람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재키 정 간사, 그가 남긴 사랑과 복음의 향기는 오늘도 Loving Worship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소서.



Loving Worship 대표 Joseph Lee 목사 드림



THIS. IS.
RUACH.

The Voice — Praise Concert

Venue

The Novo
 8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Dates

Sat. 8.01 — 6:30PM
 Sun. 8.02 — 6: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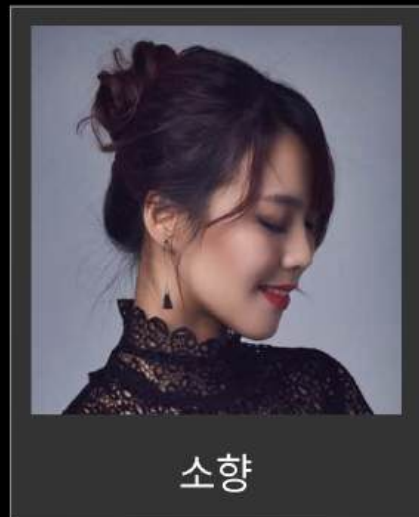
Tickets

\$50 & \$60
 —
 213.357.1565
 562.766.9494 (text)
 www.axs.com

On stage with:

강준민 목사 국윤권 목사
 고창현 목사 박은성 목사
 구봉주 목사 조셉리 목사

Special guests



주최 주관 Loving Worship

대표 목사 Joseph Lee 목사

Producer Troy Choi





Holy Impact 총전소 '인랜드교회'

인랜드교회 6대 담임 최원일 목사

날씨가 이상하리만큼 청명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6월의 날씨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복잡한 57번 고속도로에서 밀려오는 짜증까지 잊게 해 준다. 맑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어서 그렇다는 생각까지 든다.

LA 동부 포모나 주택가 한가운데 인랜드교회가 있다. 지난 2025년 8월 17일, 제6대 담임목사로 최원일 목사를 맞이하며 새로운 영적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는 교회다.

30분 설교 위해 30시간 목상

최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11년간 사역하며 예배와 제자 훈련의 깊은 기틀을 닦았던 목회자다. 부임 당시, 지역 성도들이 이미 그의 사역적 발자취를 잘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만남은 낯설기보다 친근하고 따뜻했다.

부임 후 약 1년이 지난 지금, 인랜드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평신도 훈련의 열기가 다시 더해지며 건강한 변화의 물결이 치고 있다.

이 물결의 중심에는 예배가 예배다. 최 목사의 말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혼이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기획의 중심에는 ‘사람을 모으는 퍼포먼스’가 아닌,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원일 목사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교가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의 설교 스타일은 도덕적 훈화나 율법적 강요에 머물지 않는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녹아 있는 ‘구속사적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존재를 발견하고 온전한 회복을



최원일 목사가 대예배실에서 따뜻한 공동체인 인랜드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험하도록 돕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깊이는 철저한 무릎의 시간에서 나온다. 최 목사는 고(故) 옥한흠 목사의 “1분 설교를 위해 1시간을 준비하라”는 가르침을 목회적 뼈대로 삼고 있다. “30분의 강단 설교를 위해 일주일 동안 최소 30시간 이상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고의 시간이 없으면, 성도들의 영혼을 울리는 생명의 양식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파감한 선택 ‘금요 홀리 임팩트’

이런 점에서 올해 초, 최 목사가 단행한 ‘금요 홀리 임팩트(Holy Impact)’ 집회로의 전환은 파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수십 년간 수요일 저녁에 고착되어 있던 주중 예배를 금요일 밤으로 과감히 옮겼다.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강력한 영향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도 새로 지었다.

현재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어지고 있는 ‘금요 홀리 임팩트’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어 9시쯤 끝난다. 하지만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킨다. 성도들이 주중 일과에 쫓기지 않고, 시간 제약 없이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는 최 목사의 생각이 적중한 것이다.

최 목사는 “금요 집회 시간에 맞춰 자녀들을 위한 아와나(Awana) 프로그램과 중고등부 모임을 같은 시간에 배치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걱정 없이 오직 예배와 영적 회복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밤,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채

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군사 세우기

예배가 영적 공급의 통로라면, ‘제자 훈련’은 성도를 흔들리지 않는 군사로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이다. 최 목사에겐 제자 훈련은 단순한 교재 학습이나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는 이를 “평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고민을 나누는 목회철학 자체”라고 정의한다.

위축되어 있던 영적 활기를 되찾기 위해 선택한 제자 훈련은 철저한 ‘본질’과 ‘모범’을 원칙으로 삼았다. 시무 장로들과 지난 한 학기 동안 먼저 제자 훈련을 가졌고, 이어 15명의 평신도 리더를 직접 양육해 양육반을 출범시켰다.

인랜드교회의 제자 훈련 체계는 4주 새가족반을 시작으로 15명의 평신도 리더들이 인도하는 양육반,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교역자들이 리드하는 제자반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최 목사가 제시하는 제자의 기준은 명확하다. 전적 위탁, 복음의 증인, 자립 신앙,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섬김의 종이다.

GLORY 현재와 미래의 키

최원일 목사가 인랜드교회 부임 후 만들어 온 예배와 제자 훈련 등은 커다란 비전 안에 있는 하나의 기초 그림이다. 그는 ‘GLORY’라는 단어로 비전을 집약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Glorifying God),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Living as Jesus’ disciples),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Obedying the Great Commission),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Raising the Next Generation), 이웃을 섬기는 교회(Yielded

for Others)다.

여기서 핵심은 영적 공급인 ‘인풋(Input: G, L)’과 은혜의 흘러보냄인 ‘아웃풋(Output: O, R, Y)’의 건 강한 균형이다. 현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주중 사역인 매주 수요일 200여 명의 어르신에 참여하는 실버 대학 ‘에버그린’과 목요일 여성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여성 목요 센터’는 이웃을 향한 대표적인 섬김의 현장이다. 또한 ‘인랜드 장학회’를 통해 지역 고등학생과 신학생들을 후원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 가고 있다.

최원일 목사의 설명이다. “공급(Input)은 약한데 사역(Output)에만 매달리면 성도와 사역자 모두 금방 지치고 맙니다. 반대로 은혜만 받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썩게 되지요. 지금은 예배와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단계입니다. 은혜의 인풋이 가득 차오르면, 선교와 나눔이라는 아웃풋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최 목사는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보여준 인랜드교회 성도들의 ‘성숙함과 겸손함’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어른들이 계신 것, 그리고 이미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며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순종해 준 장로들과 중직자들의 모습에서 교회의 희망을 봤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투영(Reflect)하는 본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성도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최원일 목사. 예배의 감격으로 채워지고 제자의 삶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인랜드교회의 새로운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신정호 선임기자

소프트웨어(담임목사)와 하드웨어(교회)

제6대 담임 최원일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게이트웨이 세미나리에서 수학과,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다. 지난 2000년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을 시작해 25년이 넘는 풍부한 목회 경험을 갖추었으며, 201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인랜드교회 부임 전에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하며 예배와 제자 훈련의 깊은 기틀을 닦았다. 인랜드교회는 캘리포니아 포모나에 위치한 교회로, 지역 사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는 약 6에이커 규모의 대지에 총 3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대예배실은 좌석 배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600명 이상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규모다. 교육관 내에 있는 체육관은 교회 청소년들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에도 매일 개방되어 농구와 배드민턴 등을 즐기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연령대에 맞춘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양육하기 위한 특별 사역들 역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매주 수요일 운영되는 실버 대학 ‘에버그린’은 대표적인 지역 섬김 사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목요일에 열리는 ‘여성 목요 센터’는 여성들을 위한 치유의 시간으로 꾸려진다.



지난 3월 개최된 제자반 참가자들이 최원일 목사(왼쪽에서 3번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래도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을 아는 사람에게 대강 가입하시겠습니까?

데이터로 보는 캘리포니아 보험

-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 회사(캐리어)는 - 약 270~300여 개 사
- ✓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 - 생명보험 : 5~15개 - 개인은퇴연금 : 3~10개
- ✓ 한 상품당 선택할 수 있는 라이더(특약)의 수 - 생명보험 : 보통 5~15개 - 개인은퇴연금 : 보통 3~8개
- ✓ 평균적으로 동시에 선택하는 라이더 수 - 2~5개 정도
- ✓ 여러분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 할 수 있는 확률은? - “수십만 대 일 ~ 수천만 대 일” - 캘리포니아보험국 ‘2024 MARKET SHARE REPORT’ -

“보험 선택은 수백만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기준으로 1~3개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상품에 대해 알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gent 신정호 (Lic# 4462712)

- Cell : 949-522-0778
- jeongho.shin@bridgeoneins.com
- Office : 562-222-8877
- Fax : 714-636-0023
- 6767 Katella Ave. Cypress, CA 90630



유튜브 채널
새비이코노미



에이전트 모집중 재정 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밖으로는 '평화', 안으로는 '핍박' 인도 힌두 민족주의의 두 얼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전국 기독교 대회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사진은 기고글과 무관). ©기독교일보 DB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국제 기독교 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의 기고글인 '힌두 민족주의 세력, 인도 내 박해 문제에 대한 커지는 비판을 피하려 하다'(Hindu nationalists try to dodge growing scrutiny over persecution in India)를 5월 27일 게재했다. ICC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독교도와 종교적 소수자의 인권을 염려하는 종교 간, 비정부적, 비당파적 기독교 단체이다. 이들은 지원, 옹호 및 인식을 통해 모든 형태의 박해로부터 종교적 소수자를 돕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인도의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이념적 근간으로 널리 알려진 힌두 민족주의의 단체 민족봉사단(RSS, Rashtriya Swayamsevak Sangh)이 종교 박해 및 종교 간 폭력 조장이라는 커져가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제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최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다타트레야 호사발레(Dattatreya Hosabale) RSS 사무총장은 단체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방문했으며, 유럽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홍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를 비롯한 인권 단체와 종교 자유 감시 단체들의 우려가 수년간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USCIRF는 2025년 11월 보고서에서 RSS가 "수십 년 동안 소수 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과 불관용 행위에 가담해 왔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RSS의 이번 홍보 캠페인이 인도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USCIRF의 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분석한다. 국제기독교연대(ICC)를 포함한 종교 자유 단체들은 수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쓰며 USCIRF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배타적 철학이 만들어낸 우려스러운 역사 RSS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힌두 중심의 문명 및 문화 운동"이라고 묘사해 왔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이들의 영향력이, 특히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BJP 정권하에서 인도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1925년에 설립된 RSS는 역사적으로 힌두교의 정체성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비전을 옹호해 왔다. 이 단체는 자신들이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산하 단체들과 이념적 지지자들은 무슬림, 기독교인, 시크교도 및 기타 종교 소수자들을 표적으로 삼은 위협, 차별, 군중 폭력 캠페인에 반복적으로 연루되어 왔다.

이 단체는 20세기에 여러 차례 활동이 금지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48년 RSS 전직 회원이던 나투람 고드세(Nathuram Godse)가 마하트마 간디를 암살한 사건 이후다. 간디는 독립 이후 인도의 종교적 다원주의와 공존을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이다.

오늘날 RSS는 광범위한 산하 단체 및 풀뿌리 활동가 네트워크를 통해 인도의 정치와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모디 총리의 재임 기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

인권 옹호자들은 이러한 이념적 생태계가 점차 소수 종교인을 소외시키고 지역 사회의 극단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과 선동적인 수사(rhetoric)로 변질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핍박받는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인도의 기독교인들에게 그 여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BJP가 통치하는 여러 주에서는 교회에 대한 공격, 목회자 체포, 예배 중 군중의 습격, 강제 개종 혐의 고발 등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사건의 상당수는 '개종 금지법(anti-conversion laws)'의 틀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비판가들은 이 법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제정되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무기로 일상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승연 기자

방글라데시 기독교인 박해 심화 개종자들 신앙 포기 압박에 은신 생활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공격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슬람주의 정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박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2024년 장기 집권하던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가 실각한 이후 올해 2월 첫 총선을 실시했다. 하시나 전 총리는 15년간 국가를 통치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와 부패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강경한 무관용 정책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의 실각 이후 기독교인과 힌두교인들은 공격 사례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겨냥한 위협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이 승리했다. 그러나 주요 야당 세력인 자마트에이슬라미 연합 역시 전체 득표의 3분의 1에 가까운 지지를 얻으며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오픈도어 영국아일랜드 지부(Open Doors UK & Ireland)는 선거 이전부터

증가하던 종교 소수자 대상 폭력이 선거 이후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도 다카의 성 유진 드 마즈노 성당(St. Eugene de Mazenod Church)에서 한 가톨릭 사제가 폭행을 당하고 여권과 약 1,000파운드 상당의 금품을 강탈당한 사건이 보고됐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자마트에이슬라미의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서 폭력 사건이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이후 보고된 소수종교인 대상 사건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힌두교 및 기독교 지도자들이 수도 다카에서 시위를 열고 정부에 종교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물리적 폭력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사례에서는 이슬람주의 성향의 초등학교 교사가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 개종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마을에서 추방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소 한 명의 기독교인이 안전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의 현지 협력자는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일부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점점 더 강한 사회적·종교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 0시) 오전 8시
3부예배(새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봉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종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2강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층 주일영광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토)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찬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범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하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장미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요일 3시
LA 밸리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애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본야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기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본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 새벽 6:00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애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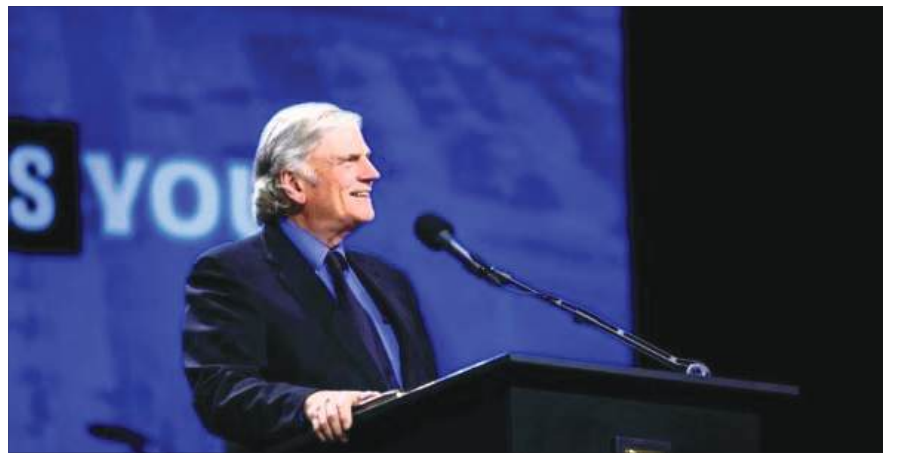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토)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프랭클린 그라함, 美 민주당 후보 “성경은 낙태에 침묵” 주장 반박



2024년 6월 22일 영국 글래스고의 오보 히드로에서 설교하는 프랭클린 그라함 목사. © BGEA

미국의 복음전도자이자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 대표인 프랭클린 그라함(Franklin Graham) 목사가 낙태 문제와 관련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한 텍사스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탈라리코는 오는 11월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텍사스주 법무장관인 켄 팩스턴(Ken Paxton)과 맞붙을 예정이다. 그는 최근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전 로레알 CEO인 제이미 커너 리마(Jamie Kern Lim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정부의 낙태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는 “나는 텍사스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미래에 관한 결정을 가족, 의사, 신앙 지도자들과 상의해 스스로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는 내 신앙에도 불구하고 갖게 된 신념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때문에 갖게 된 신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수님은 낙태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성경도 낙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이처럼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경이 직접 언급하지 않을 때는 성경 전체를 고려해 윤리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생명운동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프랭클린 그라함(Franklin Graham) 목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탈라리코 후보는 완전히 틀렸다”며 “성경이 낙태에 침묵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출애굽기 20:13)고 명령하셨다”며 “낙태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며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가르치며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며 예레미야 1장 5절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그라함 목사는 아울러 탈라리코가 2021년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하나님은 논바이너리(non-binary)”라고 주장했던 사실도 언급하며 유권자들에게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친생명단체 전미 생명 수호 학생 연합(Students for Life of America)의 대표 크리스탄 호킨스(Kristan Hawkins)도 탈라리코가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님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킨스는 “성경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가르친다”며 “성경이 낙태에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방송인인 글렌 벡(Glenn Beck) 역시 탈라리코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SNS서비스 X를 통해 탈라리코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하며, 텍사스 유권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최승연 기자

낙태 클리닉 인근 설교로 유죄 받은 목회자, 항소

북아일랜드의 한 목회자가 낙태 클리닉 인근 완충구역(buffer zone)에서 성경을 설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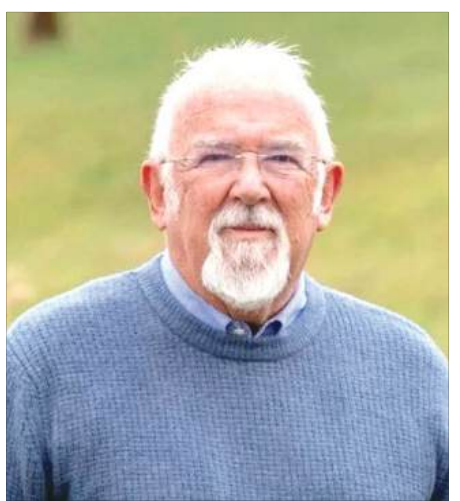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은퇴한 목회자인 클리브 존스턴(Clive Johnston, 78)은 이달 초 콜레웨인 위치한 코즈웨이 병원(Causeway Hospital)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낙태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4년 병원 인근에서 열린 야외 예배 중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존스턴 목사에게 병원 채플 등 ‘안전한 공간’에서 설교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북아일랜드의 낙태 서비스 안전접근구역법(Abortion Services Safe Access Zones Act) 위반 혐의 두 건으로 기소됐으며, 벌금 450파운드(약 80만 원)를 선고받았다.

논란이 된 설교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제로 한 내용으로, 낙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존스턴 목사는 항소 결정을 발표하며 이번 판결이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낙태 반대 시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죄 판결이 유지된다면 단순히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증언과 공개적인 신앙 표현이 범죄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이는 낙태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이 우려해야 할 문제”



존스턴 목사. ©The Christian Institute

라고 주장했다.

존스턴 목사는 현재 기독교 법률·정책 단체인 기독교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의 부대표인 사이먼 칼버트(Simon Calvert)는 “이 사건은 괴롭힘이나 위협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클리브 존스턴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낙태 완충구역법 아래에서 국가가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평화로운 기독교 신앙 표현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만약 공공기관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다. 앞서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영국 당국이 대서양 동맹의 공동 가치를 훼손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스코틀랜드 낙태 건수 사상 최고치

스코틀랜드에서 낙태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톨릭교회가 임신부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낙태 증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cotland)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코틀랜드에서는 총 1만 8,783건의 낙태가 시행됐다. 이는 2016년의 1만2,135건과 비교해 5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가만으로는 이러한 상승세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44세 여성 1,000명당 낙태율 역시 2016년 11.9건에서 2025년 17.6건으로 상승했다. 전체 건수와 인구 대비 비율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낙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5년 장애를 이유로 시행된 낙태는 277건으로 집계돼 2018년 대비 61% 증가했다. 또한 임신 18~20주 사이에 시행된 낙태도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코틀랜드의 법정 낙태 허용 기간은 임신 24주까지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 가톨릭교회회의는 이번 통계가 어려운 임신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향한 보다 자비롭고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주교회의의 의장

인 존 킨난(John Keenan) 주교는 성명을 통해 “모든 수치 뒤에는 고유한 존엄성을 지닌 한 생명과 두려움, 고립, 어려움에 직면한 한 어머니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통계는 체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환영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회는 위기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임신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며 “여성들은 낙태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문화가 아니라 실질적·정서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킨난 주교는 스코틀랜드 정부를 향해 임신부와 태아 모두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스코틀랜드는 어머니와 아이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연민으로 여겨지고,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잉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보호받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전 수상인 흄자 유사프(Humza Yousaf)의 의뢰로 진행된 낙태법 검토 보고서는 현행 24주 제한을 유지하되, 그 이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낙태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경 기자

워싱턴 내셔널스 기독교 선수 홍보 배제 파문



©Gemini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의 고위 관계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선수를 구단 소셜미디어 홍보에서 고의로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장 취재 영상을 통해 폭로됐다고 5월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선수가 보수적인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특정 단체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로 지목되면서 메이저리그 내 종교 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사회운동가 제임스 오키프는 화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시민 저널리즘 재단 소속의 위장 취재자가 손 허드슨 워싱턴 내셔널스 지역사회 협력 디렉터와 나눈 대화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천포스트는 이번 위장 취재 영상과 관련해 워싱턴 내셔널스 측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으나 구단 측은 아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톨릭 신앙 표출 선수 의도적 배제 종교 차별 논란

공개된 영상에서 허드슨 디렉터는 구단 수뇌부가 보수적인 성향의 선수를 통제하느냐는 질문에 소속 투수인 트레버 윌리엄스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윌리엄스가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몸에 종교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문신들을 새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엘에이 다저스 구단이 수뇌부장을 하는 드래그 쿨(연장 남자) 단체인 영원한 면죄의 수녀들을 초청했을 당시 윌리엄스가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윌리엄스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해 허드슨은 선수의 입장이 자신의 종교를 조롱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었다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허드슨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구단 소셜미디어 홍보에 윌리엄스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핫도그가 샌드위치인지 묻는 가벼운 구단 자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조차 윌리엄스에게는 의도적으로 질문을 건네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덧붙였다.

극좌 성향 과시 및 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발언 파장

허드슨 디렉터의 논란은 선수 차별에만 그치지 않았다.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자신을 매우 극단적인 좌파 성향이라고 소개하며 자택 부역에 공산당 가입을 독려하는 포스터가 있다고 자랑했다. 그는 공산주의와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워싱턴 내셔널스 선수가 홈런을 칠 때마다 공산당에 100달러씩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편향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팬들을 대하는 구단의 오만한 태도와 사생활 침해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드슨은 팬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불만을 품더라도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포츠 팬들이 불만을 품더라도 결국 경기를 보려면 경기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팬들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다. 더 나아가 그는 내셔널스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에 대해 구단이 구매 습관을 포함한 모든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쿠키 수집에 동의함으로써 팬들은 구단이 막대한 양의 구글 검색 기록을 확보하도록 허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단이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문객을 분류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편향적 사내 문화 조장 및 사후 혐의 부인 논란 가중

허드슨은 워싱턴 내셔널스 구단 내부의 편향적인 사내 문화 조장 의혹도 자초했다. 그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조직된 직원 복지 그룹(ERG)을 언급하며 성소수자 모임 측에서 외부인의 참석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또한 성소수자 직원들만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워싱턴 내셔널스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메이저리그 내의 종교 탄압과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촉발하며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미자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연합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 (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물레슬)**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 가리전드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어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모 집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역임

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lga.com

웨슬리 회심 288주년 GMC 한미연회 서부지방 연합성회

웨슬리 회심 288주년 GMC 한미연회 서부지방 연합성회가 현지 시간 지난 5월 22일과 23일에 열렸다. 생수의 강 글로벌 감리교회(GMC, 김영웅 목사)와 새빛 사랑 글로벌 감리교회(GMC, 박유 목사)에서 열린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 성회는 GMC 한미연회의 이성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또한, 시애틀 영화 글로벌 감리교회(GMC, 민관영 목사)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 교회의 진혼 성도는 그로서리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

건으로 두 발의 총상을 입고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였고, 새로운 보험사를 알아보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수술비, 치료비, 재활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생활고까지 겹쳐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소식을 접한 서부 지방회는 연합 부흥회를 준비하던 중 진혼 성도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기

로 결정했다. 부흥회 둘째 날 집회에서 드려진 특별헌금 \$3,500은 민관영 목사를 통해 진혼 성도에게 전달되었다.

서부 지방회는 헌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진혼 성도의 회복과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하기로 했다.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는 2022년 연합감리교회(UMC)로부터 분리되어 창설된 교단으로, 신학적·윤리적 기독교 정통성을 고수하는 것을 주요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김민선 기자



웨슬리 회심 288주년 GMC 한미연회 서부지방 연합성회 ©GMC 한미연회

PGM, 북미 중남미 아시아 유럽권역 모임 개최

세계전문인선교회(PGM,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가 4~6월 미국, 과테말라, 한국, 영국에서 순차적으로 권역별 선교사 모임을 갖고 유기적 선교공동체의 비전을 나눴다.

이번 권역별 선교사 모임은 '서류 보고 시스템에만 의존하다 보면 선교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놓칠 수 있고 곧바로 선교단체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호성기 국제대표의 상황의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권역별 모임은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선교단체의 핵심가치를 다시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국제대표와 권역장들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북미, 중남미, 아시아, 유럽 권역 소속 선교사 90여명과 소통하고 선교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PGM의 핵심 가치를 다시 전달했




PGM 중남미권역 선교사들이 지난 4월 과테말라한인장로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세계전문인선교회

다. 선교사들은 교제를 통해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영육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북미권역 모임에 참석한 나원주 선교사는 "워싱턴DC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선교사역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모임을 통해 전국과 같은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33년 간 미국 정부 수의병리연구관 경험을 토대로 과테말라에서 전문인선교 활동을 펼친 김현영 선교사도 "선교지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3중사역 뿐만 아니라 바울의 팀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사역의 열매보다 선교지 멘토링과 훈련, 공동체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ww.en.kurbanlike.com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Show Room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새가 날아오기를 바라거든, 먼저 나무를 심으십시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모국을 방문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공항에 있는 서점입니다. 그 이유는 서점에서 만난 책이 세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만난 책 중의 하나는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쓴 《오십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는 책입니다. 이 교수는 90세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시력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서문에서 이 교수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감사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을 돌이켜 보니 모든 일 속에 의미가 있고, 그런 까닭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교수님이 선물로 받은 액자 속에 담긴 글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새가 날아오기를 바라거든 먼저 나무를 심어라." 이 글을 읽는 순간, 오래전에 Serra 수양관에서 만난 중국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마음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찾아온다."

젊은 시절에는 새가 날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좋은 만남과 좋은 기회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새를 부르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나무라는 사실을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새는 머물 곳을 찾아 날아옵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안전한 가지와 따뜻한 동지가 있는 곳으로 날아옵니다. 인간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깊은 만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고 키우듯이 오랜 배려와 신뢰와 사랑을 가꿀 때 좋은 만남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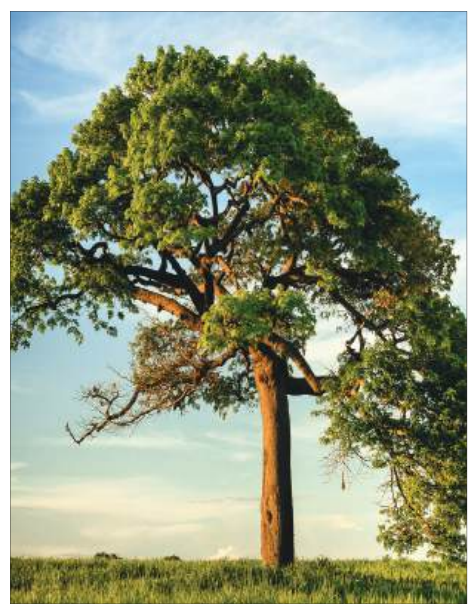
젊은 날에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능력보다 관계가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보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농작의 법칙은 변함없는 법칙임을 더욱 깨닫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일찍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복리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지혜를 심으면 통찰을 거둡니다. 정직을 심으면 신뢰를 거둡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둡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거둡니다. 또한 심은 것보다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심은 것은 세월 속에서 예상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미리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장작을 준비하듯, 노년이 오기 전에 좋은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는 시간은 미래를 향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말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 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 곁에 오래 남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짐 론은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구와 함께 걷는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물면 영혼도 따뜻해집니다. 혼자 강한 사람보다 함께 걸을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젊을 때는 경쟁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공감이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향과 동행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좋은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전 4:9).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좋은 만남을 가꾸는 것은 지혜입니다. 좋은 만남의 선물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새가 나무를 찾듯,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 다.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사랑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감사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배려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책 읽는 나무를 심으십시오. 기도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정직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새들이 날아와 앉을 것입니다. 외로운 날에는 친구가 찾아오고, 지친 날에는 위로의 사람이 다가오고, 눈물의 계절에는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곁에 머물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나무를 심은 사람만이 마침내 새들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진유철 칼럼

확실성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은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온갖 정보를 동원하고, 힘 있는 권력의 줄을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을 동원하여 확실한 길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종교에서도 이단일수록 확실성을 추구하여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의 해석을 딱딱 맞춥니다.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설명하니 사람들이

이 미혹을 당합니다. 신앙은 상황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은 확실했습니까? 오히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했고, 가뭄과 흉년의 땅에서 불확실한 길을 믿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낭패를 만나지만, 건지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여 믿음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흠 잡힐 것 없었던 다니엘의 상황은 확실했습니까? 불 풀 무나 사자 굴에 들어가며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나지만 기도로 믿음을 쌓으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언제 확실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해도 유럽으로 가라하시고, 로마로 가라해 놓고 거친 바람과 풍랑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

나 늘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쌓아가므로 더 깊고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 생활을 오래할수록 상황 판단은 빠르고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도 오히려 믿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확실하게 하는데 너무 쫓겨서 하나님을 알 믿음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험과 숙제에 쫓겨 믿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직분자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신학생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넘치는 정보로 원수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영적 습관을 반복하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일의 예배 성공이 쌓이고, 한기다말이 쌓이고, 감사노트와 열품종의 기도가 쌓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혹시 '그런 작고 평범한 일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까?'라는 생각이 든다

면 아닙니다. 0.1cm종이는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을 30번 접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1,073km (0.1cm x 2의 30승 = 107,374,182.4cm = 약 1,073km) 종이 30장의 두께가 아니라, 종이를 반으로 30번 접었을 때의 두께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2장이고, 또 반으로 접으면 4장, 또 반으로 접으면 8장..... 이렇게 2배씩 증가합니다. 결국, 종이를 30번 접으면 종이의 장수는 2의 30제곱이 되어 엄청난 두께가 됩니다. 1명으로 시작하여 3명에게 전해지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10일 지나면 무려 88,573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도 믿음을 쌓아가는 일이 되면 그 영향력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세상의 확실성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쌓아가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S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빛' 검색
유튜브: '달빛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62)6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Ci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a.edu

타이틀 후원사 **센터메디컬그룹**

TOP7 미스트롯4



SPECIAL GUEST
'부초같은 인생' 김용임

시청률 신화의 요정들 미국 상륙!

미스트롯4 TOP7 &

트롯레전드 김용임 전격 출연



윤윤서

길려원

허찬미

이소나

홍성윤

윤태화

염유리

LA Live Concert

2026. 8. 22(토)

2:00PM, 6:30PM(2회 공연) | 월셔이벨극장

특별협찬 비즈니스의 든든한 파트너 **cbb Bank**



멕시코크루즈 & 선상콘서트

8월 24일(월)~28일(금), 4박 5일간

28일 금요일 오전 하선 예정, 얼리버드 이벤트 후 가격은 변경됩니다.

\$899 \$599 인사이드	\$1079 \$699 오션뷰	\$1299 \$799 발코니
--	--	--

6월 5일까지
얼리버드 이벤트
미스트롯4
공연 티켓 증정
즉시 구매 가능
선착순 마감

**압도적
파격가**

카탈리나섬 투어, 멕시코 엔세나다 - 마리야치 공연 & 민속춤, 프라이빗 선상 공연
1인당/2인1실 기준 - 예약시 완납 Non Refundable, 4박5일 유람선 비용, 모든 세금(포트세, 정부세) 포함

여행의 명문 - **ELITE TOUR** | 엘리트 투어 |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 공연티켓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4221 Wilshire Blvd. #224, Los Angeles, CA 90010

朝鮮日報
창간 106주년
미주조선일보
창간 7주년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목동칼럼 (17)

베다니에서 돌아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요셉은 감옥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다윗은 도망자의 세월을 거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 영광으로 나아갔다.

현재 뉴저지 베다니교회에서 열리는 글로벌감리교회 제2차 한미연회에 참석하며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의 지난한 여정을 돌아보게 된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2016년 이후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전통적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기도하며 교단의 미래를 염려하였다. 2019년 특별총회는 전통적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하였지만, 갈등은 쉽

게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새로운 길을 향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2년 글로벌감리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교단의 탄생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붙들고자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의 열매였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아픔도 있었다. 필자 역시 20년 동안 섬겨 왔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교단의 동성애 목사 안수 문제에 대한 신앙적 입장을 견지하는 과정에서 결국 파면을 받았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했다. 조금의 조롱과 조금의 능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2023년 6월 25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광야로 나왔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필자가 섬기고 있는 미라클 LA 교회이다. 돌아보면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한인교회들도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뉴저지 더바인교회에서는 한인교회총회를 준비하는 첫 모임이 열렸다. 아무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모임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씨앗을 심고 계셨다.

이어 남부플로리다교회에서는 역사적인 한인교회총회가 창립되었다. 이는 단순한 조직의 출범이 아니라 복음주의 신앙과 웨슬리안 전통을 계승하려는 믿음의 결단이었다.

템파코교회에서는 한미연회의 태동을 위한 비전연회가 열렸다. 하나님께서는 한인교회들이 민족교회를 넘어 다민족 사역과 세계선교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보여 주셨다.

달라스중앙교회에서는 프로베이셔널 한미연회가 조직되었다. 아직 제도도 조직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한 걸음씩 길을 열어 주셨다. 디트로이트교회에서는 제1차 정규 한미연회가 개최되었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넌 것 같은 감격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뉴저지 베다니교회에서 제2차 정규 한미연회로 모이고 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고, 문둥이 시몬이 있었으며,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가 있었다. 베다니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곳이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곳이었으며, 헌신이 꽃피는 곳이었다. 특별히 문둥이 시몬의 존재는 베다니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든다.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는 공동체 밖으로 내쫓겨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셨다. 베다니는 배제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였고,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였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회복되었으며, 향유를 깨뜨리는 헌신이 꽃피었다.

어쩌면 지난 10년의 우리의 여정도 베다니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주셨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맡기셨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승천하셨다는 사실이다. 베다니는 쉼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파송의 장소였다. 회복의 장소였지만 또한 선교의 출발점이었다. 주님은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번 제2차 한미연회 역시 과거의 감동을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받는 자리임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아직 이루어야 할 선교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인교회 총회의 창립, 한미연회의 출범, 미라클 LA 교회의 개척,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더 큰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믿는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 2019년 특별총회도, 2022년 글로벌감리교회의 출범도, 더바인교회의 작은 모임도, 남부플로리다교회의 창립총회도, 템파의 비전연회도, 달라스의 프로베이셔널 연회도, 디트로이트의 첫 정규연회도, 그리고 오늘 베다니교회에서 열리는 제2차 정규 한미연회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베다니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 한 걸음, Sola Scriptura,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간다.

새라 김 칼럼

미국의 영적 전쟁, 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반격

미국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중심에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과 태어나지도 못하고 “여성의 선택 우선주의”라는 이념 아래 무참히 죽어가는 태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은 특별히 크리스천 자녀들과 가정의 탄생되지도 못하도록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세대에게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육계에 뿌리내린 잘못된 성 정체성의 뿌리들을 제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미연방 교육부에서 기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LGBTQ+ 학생들을 ‘타이틀 IX’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석했던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체결된 협정들을 파기시켰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타이틀 IX는 LGBTQ 특정 보호까지 포함시킨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 영적 전쟁이자 문화 전쟁의 핵심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여학생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가장 큰 논쟁의 중심에 들어왔으며,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소년은 소녀들의 사생활 공간과 소녀 특정 스포츠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컸습니다.

상극적인 정책들의 변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지난 부활절 기간에 발표된 백악관 공식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성 정체성과 관련된 “파괴적이고 woke 한 정책들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철폐하는 과정”에서 거둔 결정적인 승리들을 발표하며, 특별히 Title IX를 제자리로 복귀시킨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부활절 기간에 백악관에서 진행했던 행사와는 상극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는 백악관에 동성애 무지개와 트랜스젠더 깃발들이 높이 올라가 있었고, 백악관 전체가 LGBTQ 로비 단체들과 트랜스젠더들의 파티장이 되고, 심지어 여장을 한 트랜스젠더 남성은 웃옷을 벗어 여성 가슴까지 내놓고 춤추는 모

습을 보여 큰 논란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Title IX 복귀와 즉각적인 실행 결과물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는 Holy Week으로 지키는 부활절 기간인 3월 31일, LGBTQ+의 인권을 포함하도록 수정시켰었던 Title IX 법안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 모든 대학들과 미국 공교육 안에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성별 교육을 올바르게 잡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정책은 즉각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타이틀 나인(Title IX)’ 안에 트랜스젠더 및 동성애 학생들에게까지 확대 해석하여 타이틀 나인을 수정한 후 체결했던 대학과 교육구와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틀 IX의 본래 의미와 해석 변화 배경: ‘Title IX-타이틀 나인’은 1972년에 제정된 법으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 교육부 민권국(OCR)이 이 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오바

마 정부의 교육부는 성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타이틀 IX이 ‘성 고정관념’과 ‘성별 불일치’에 대한 특별 보호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민권국은 트랜스젠더 학생들도 포함된다고 확대 추가를 했고, 2016년에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와 본인이 선택한 화장실, 탈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공식화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법안 및 정책 변화들: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Title IX 법적 해석에 이어, 2017년 새로 들어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확대 해석을 즉각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다시 뒤집고 LGBTQ 인권 보호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변화를 다시 이전의 정상적 남·녀 성별 상태로 돌려놓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정책 변화에 따르는 실제적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한 철저한 조사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교육계의 불평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계속]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비즈니스가 사명이 되는 시대

건강 · 경제 · 선교를 하나로

1. Teloyouth B.A.M은 비즈니스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 ✓ Teloyouth 핵심 메시지
- ✓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술 기반
- ✓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 활성화 (36배)
- ✓ 10년 이상 젊어지는 회복 프로그램
-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 재구매율 91%-지속 가능한 구조
- ✓ 온몸의 세포 기능 · 구조 · 감정까지 회복
- ✓ 100만 명 이상 변화된 글로벌 사례

2. 왜 지금 반드시 필요한가?

- ✓ 성도들의 실제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
- ✓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
- ✓ 선교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
- ✓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글로벌 리더십 플랫폼

B.A.M (Business As Mission)

- 비즈니스가 선교입니다
- 가정이 선교입니다
- 우리의 일터가 선교입니다

Teloyouth는 사역과 비즈니스가 하나 되는 플랫폼입니다

3. 세대별 비전

- ✓ **차세대 (20-30대)**
→ 글로벌 창업 & SNS 기반 사역 (Telopet 포함)
- ✓ **중장년 (40-50대)**
→ 글로벌 헬스 비즈니스 리더십
- ✓ **시니어 (60+)**
→ 건강 회복 + 경제적 은퇴 플랜 + 사역



제4회 TELO B.A.M (Business As Mission) 미팅 초청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혼의 회복뿐 아니라 건강의 회복, 경제의 회복, 삶 전체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세우며 세계를 섬기는 리더로 서십시오.

이번 제4회 미팅 핵심

- 실제 B.A.M 사역 진행 스토리 공유
- 건강 회복 & 삶의 변화 사례
- 글로벌 확장 비전 발표
- 차세대 리더 세우기 전략

대상

- 목회자 · 사역자
- 크리스천 사업가
- 차세대 창업가 & 리더



폴 김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펌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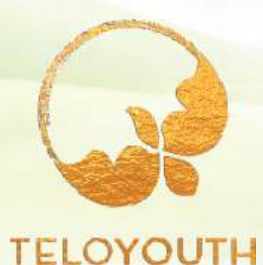
모임 안내

2026년 6월 6일 (토) 오후 2시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초청 대상 한정 / 예약 필수

문의 및 예약 : 714-732-8477 Paul Kim (수석코치)



텔로유스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크리스찬북뉴스 서성진 서평] ‘무슨 일 하세요?’ 보다 ‘누구를 위해 일하세요?’

내 삶과 재정과 소유물 중, 주님의 것은 몇 %일까요?



일과 소명
 존 레녹스 | 정효진 역
 아바서원 | 320쪽 | 18,000원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 박사가 일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자신의 경험과 성경을 통하여 안내한다

많은 사람이 일이 마치 ‘죄의 결과’ 라고 생각하지만, 레녹스 박사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도 친히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흔히 교회 사역이 일반 직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분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를 지혜롭게 활용한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 수학자이자 과학철학자인 저자 존 레녹스. ©페이스북

존 레녹스는 뛰어난 수학자로 옥스퍼드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이자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대학 특별연구원, 위클리프 홀 특별연구원이다. 또 그는 그린템플턴대학 목회고문이자 기독교를 변증하는 복음주의 학자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일과 소명: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땅의 삶>이란 최근 저작을 통해 독자에게 할 말이 있다. 폴타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제는 ‘A Good Return: Biblical Principles for Work, Wealth and Wisdom’.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노동의 원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원서 표지에는 커다란 ‘%’가 인쇄되어 있는데, 추측해 보건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과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이 남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다. 각 사람의 공적이 불타고 난 후 그대로 남을수록 상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말이다(고전 3:13-15).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①창조와 안식 ②동기 ③ 하나님 나라를 찾는 어부 ④세속적인가 신성한가?, ⑥복음 후원자 ⑥부의 관리자 ⑦일에 대한 영원한 보상 그리고 ‘복음 후원의 원칙’과 ‘신경과학의 통찰’이라는 부록을 추가했다. 목회자를 후원하는 것의 성경적 근거와 원칙, 좌뇌와 우뇌에 따른 세

계관 차이를 각각 다룬다.

아킬 사차크의 서문과 레녹스의 들어가는 글에 이어 짧게 이 책의 개요를 설명하는데(30-34쪽), 레녹스는 이 책을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으며,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을 먼저 읽고 다른 부분을 추가로 읽어도 무방하다(27쪽)”고 말했다.

저자는 겸손히 이 책이 더 나은 직업을 소개하거나 직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 평가하면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 우리 삶을 성숙하고 거룩하게 다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직업 소명을 가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레녹스는 칼빈의 주장처럼 직업에 성(聖)-속(俗)이 없다고 강조한다. 더 성스러운 일이나 속된 일이 없다는 말이다(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근거를 창조의 목적을 통해 발견한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일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로움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일하고 쉬는 규칙이 되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이 담고 있는 형상의 주인공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부정한다. 그들이 일하는 목적은 오직 돈 또는 돈이 가져다 주는 여러 만족과 행복이다.

레녹스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라고 말한다. 일하는 것뿐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

님을 위한 것만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고 또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일해야 한다. 이 말은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 직장이 요구하는 업무를 제쳐두고 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꾼으로서, 걸맞는 도덕성과 근면성과 성실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저자 레녹스는 목회에 ‘전임’을 붙이는 것을 조심스럽게 비판한다. 주어진 모든 시간을 목회를 위하여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일은 본래 ‘전임’으로 일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자신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오해를 낳기 때문이다. 레녹스 자신도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변증 강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수학자로서 많은 학생을 성실하게 가르치는데, 이처럼 교회 지체로서 평일에는 직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전임’으로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한다.

이어서 다른 ‘복음 후원자’ 역할을 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동역할 수 있음에 틀림이 없다. 바울과 누가에게 후원자가 있었던 것처럼, 틴데일과 윗필드

가 사역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후원한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와 가치를 갖지만, 그 일하는 것으로 연계된 보상,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와 뜻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삶의 일부(주로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만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볼 때가 많다. 또 땀 흘려 번 소득의 일부만 주님의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책의 표지에 커다랗게 인쇄된 %가 독자에게 묻는다: ‘당신의 삶 100%, 당신의 소득 100%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가?’ 우리는 맡겨진 삶, 그리고 계수할 인생을 살고 있다.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서 각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신 것을 사용했는지 보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시각이 필요하다.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의 방식은 무엇인지.

존 레녹스는 독자에게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더 높은 효율, 더 남는 공적을 쌓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토)요일까지, 아침에 눈을 뜨고 일터에 나가는 진정한 이유와 동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서성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龍光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213-434-8947

fto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toplumbing

@FIPlumbin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존 칼빈의 시각예술론

존 칼빈의 종교개혁이 예술에 미친 영향



칼빈 사망 300년 후에야 재평가
칼빈 신학, 엄격·규제 통념 넘어
미적 감각 및 문화 활동 긍정하고
재배치하는 혁신적 힘 갖고 있어

존 칼빈(John Calvin)의 종교개혁이 예술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뉜다. 성상파괴(Iconoclasm)로 인해 예술 발전을 저해했다는 주장과, 오히려 예술의 본질적 특성을 되찾는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칼빈의 신학이 예술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그가 사망하고 300년이 훌쩍 지나서야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칼빈의 저작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His theater of Glory)'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스케일을 확장해주는 웅장한 개념이다. 칼빈에게 있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빛나는 광채"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헨리 반 틸(Henry R. van Til)은 하나님과 아름다움을 분리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고 했다. 반 틸은 아름다운 대상은 신적 창조물로서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영광의 명백한 표징'을 새겨 놓은 이 세계를 칼빈은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광대한 이 우주의 구조를 그 광채의

무한한 힘에 압도당하지 않고서는 잠시라도 바라볼 수 없는 것(『기독교 강요』, I.5.1)이라고 묘사한다.

칼빈은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단순한 실용적 목적을 넘어선 즐거움으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찰하면,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즐겁고 기쁘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성경 역시 인간의 미적 능력에 주목한다. 시편 94편 9절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미적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았고,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예술을 통해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확장시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주께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옷을 꽃에 입히시고 우리 코에 달콤한 향기를 풍겨 보내게 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그 미를 느끼며 코가 그 향기를 느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 주께서는 빛에도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답도록 구별하여 만드시지 않았는가? ... 한 마디로 주께서는 필요한 이용가치를 떠나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드시지 않았는가(『기독교 강요』, III.10.2)?"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기뻐하셨듯,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이다(Richard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Culture and Common Grace, 권혁민 역, 『문화와 일반은총』, 새물결플러스, 2012, 59쪽). 이런 의미에서 '경축'과 '즐거움'은 예술의 핵심적 개념이 된다.

하지만 칼빈의 종교개혁이 예술가들에게 처음부터 희망적인 소식만 들려준 것은 아니었다. 칼빈의 '제2계명'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가시적 형상을 통한 하나님 묘사를 금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중시했기 때문에, 교회 내의 가시적인 이미지를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클라에스 얀즈 비셔, '즐거운 장소' 중 6번째 판화, 라이덴으로 향한 길, 1611-12년경, 에칭, 10.3 x 15.9 cm, 브리티시 뮤지엄, 런던.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교육적 목적이나 역사 기록을 위한 그림은 수긍했으나, 예배의 대상이나 숭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형상(특히 하나님이나 성인들의 형상)은 엄격히 금지했다. 그 결과 중세교회를 상징했던 '종교화'가 시들해지는 국면을 맞았다. 미술품에게 강제로 짐 지워졌던 숭배의 대상, 간구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어졌다.

미술사학자 D. 프리드버그(D. Freedberg)는 종교개혁 이후 "과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장엄하고 창의적인 미래를 위한 길을 마련했다(David Freedberg, 'Art and Iconoclasm, 1525-1580: The Case of the North Netherlands', in Kunst voor de Beeldenstorm: Noordnederlands Kunst, 1525-1580, Rijksmuseum, 1986, 80쪽)"고 평가했다. 풍경화의 새 영역을 개척한 개혁교회 신자 클라에스 얀즈 비셔(Claes Jansz Visscher)가 제작한 '즐거운 장소(1611-1612)'는 하를렘 주변을 묘사한 판화 연작이다. 이 작품을 필두로 화가들은 교회 바깥으로 시선을 넓혀 인근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고, 얼마 안 있어 이는 네덜란드 미술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화가들의 관심은 이제 신의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 세계를 향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칼빈의 신학이 예술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카이퍼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미 제시한 '하나님의 남겨두신 선물'이라는 개념을 예술과 문화 영역에 일반은총의 관점으로 확장 및 적용했다. 이로써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 내부로 좁아졌던 예술의 영역을 교회 밖으로 확장했다.

A. 카이퍼는 미적 천재성이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의 정신에 심겨졌고, 그것을 뿌리 삼아 브라만테와 다 빈치, 미켈란젤로와 라파엘과 같은 예술적 유산을 탄생시켰다고 보았다.

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것과 관련해 '선택'을 받았다. 그들은 종교적 영역에서 더 많

은 것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종교적 영역에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정치, 문화나 상업의 발전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

구약에서 '이교도의 덕'을 찾아볼 수 있듯,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운 이교도 장인 히람(Hiram)의 뛰어난 재능은 하나님께서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학예의 재능'을 선사하셨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카이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일반은총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불신 나라들이 성소 밖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역사에서 그들 자신의 의의를 지니고, 신적 섭리에 의해 고유한 소명을 받았고, 또한 그들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세상 계획에 포함되었다(Abraham Kuyper,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박태현 역, 『칼빈주의 강연』, 도서출판 다함, 2021, 287쪽)."

카이퍼는 참되고 진정한 예술이 기독교 예술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술의 향유를 거듭난 자에게만 국한하는 것은 예술을 '특별한 은혜(특별은총)'의 산물로 귀속시키는 것이라 반박했고, 이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의 경계를 넘어 문화의 영역까지 미치게 된다는 인식을 확립했다.

종교개혁의 여파가 한때 예술가들을 위축시켰는지 모르나, 후대에는 예술의 은사를 존중하고 인류 문화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의해 교회 밖 생활도 역시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을 '사탄이 장악한 영토'로 낙인찍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무대'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이는 칼빈 신학이 단지 엄격하고 규제적이라는 통념을 넘어 오히려 인간의 미적 감각과 문화 활동을 긍정하고 재배치하는 혁신적인 힘을 지녔음을 인식시켜 준다.

서성록 명예교수



▲클라에스 얀즈 비셔, '즐거운 장소' 중 8번째 판화, 하를렘 인근에 있는 천 표백장, 1611-12년경, 에칭, 10.3 x 15.6 cm, 브리티시 뮤지엄, 런던.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심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참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참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samsungmoving@gmail.com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청년 연합 집회 'THE SEND 2026' 7월 애나하임 상륙

한청년 세대의 신앙 회복과 실천을 이끌며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해 온 기독교 연합 집회 'THE SEND'가 오는 7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THE SEND"는 단일 단체나 교회회 아닌 YWAM 코나, 서킷 라이더스, 지저스 이미지, A21 등 주요 선교 단체들이 교단과 단체의 벽을 허물고 연합하여 이끄는 글로벌 무브먼트다.

스타디움에서 컨퍼런스로... '선교적 삶'을 위한 체질 개선

이 운동은 2019년 플로리다 올랜도의 캠핑 월드 스타디움에 6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면서 화려한 서막을 열었다. 이후 2020년 브라질에서는 3개의 대형 스타디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14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초대형 집회로 성장했으며, 2022년 캔자스시티와 노르웨이 오슬로, 2024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선교로 동원해 왔다.

주목할 점은 이번 'THE SEND 애나하임 2026'이 기존의 행사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거대한 스타디움을 빌려 단 하루(10~12시간) 동안 진행하던 초대형 집회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연합 집회 'THE SEND 2026' ©THE SEND

최초로 3일간의 '컨퍼런스(Conference)' 형식으로 전격 전환했다.

주최 측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목적이 "단순히 집회 현장에서 은혜를 받는 일회성 경험을 넘어, 영감과 실제적인 변화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만 명이 모여 하루 동안 뜨겁게 헌신을 다짐하고 흠여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이 학교, 직장, 지역사회로 나아가 '선교적 삶(Missional Lifestyle)'을 실천하도

록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를 위해 대회 기간 동안 전체 메인 세션과 더불어, 부르심을 확인하는 '미션 세션(Mission Breakouts)', 개인의 은사를 복음과 연결하는 '열정 세션(Passion Breakouts)' 등 세분화된 소그룹 훈련이 집중적으로 병행된다. 특히 고아 돌봄, 입양, 인신매매 근절 등 구체적인 사회적·선교적 과제들도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세계적 메신저와 워십팀의 연합 무대 메시지를 전할 강사진 역시 각 분야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메신저들로 구성되었다.

앤디 버드(Andy Byrd): 국제예수전도단(YWAM)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의 핵심 리더. '불과 향기' 사역과 '서킷라이더' 운동을 이끌며 전 세계 영적 각성을 주도하는 선교 사역자다.

크리스틴카이네(Christine Caine): 국제적인 반(反)인신매매 단체 'A21'

를 설립하여 전 세계적 인신매매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호주 출신의 복음 전도자 겸 사회 운동가다.

테오 하야시(Teo Hayashi): 수백 개 대학에 걸쳐 확장된 청년 선교 단체 '두나미스 무브먼트'의 설립자이자 브라질 시온 교회 담임목사로, 'THE SEND'의 공동 설립자다. 마이클 쿨리아노스(Michael Koulianos): 카리스마적 기독교 사역 단체 '예수 이미지(Jesus Image)'를 설립해 깊은 예배와 사역자 훈련을 이끄는 전도자다.

프랜시스 찬(Francis Chan): 성경적 제자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 겸 저술가다.

이들의 메시지와 함께 무대를 채울 워십 라인업 역시 탄탄하다. 글로벌 워십곡 'The Blessing'의 원작자인 캐리 조베 카네스 & 코디 카네스(Kari Jobe Carnes & Cody Carnes) 부부, 전 세계 예배 음악의 흐름을 주도하는 베델 뮤직(Bethel Music), 역동적인 캠퍼스 사역을 이끄는 서킷 라이더 뮤직(Circuit Rider Music), 깊은 예배의 임재를 추구하는 지저스 이미지 워십(Jesus Image Worship), 그리고 연합 사역에서 활약하는 워십 리더 네이트 디아즈(Nate Diaz)가 참여해 집회의 깊이를 더한다.

주디 한 기자

“하루 더, 한 번 더 대화를”... 자살예방운동 펼치는 오석환 선교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오석환 선교사가 높은 한국인 자살률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자살예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래퍼 비아의의 음악과 메시지를 소재로 한 책 『죽고 싶은 당신에게-BewhY 가라사대』를 출간했다.

오 선교사는 기독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LA에는 150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거주하는데, 그 가운데 한국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며 “200년 동안 자살방지운동을 해온 한 단체 관계자가 ‘왜 한국 이민 사회 지도자들과 교회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느냐’고 말한 것이 큰 충격이었다”고 했다. 그는 책 출간뿐 아니라 음악 제작과 온라인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 존중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는 “STAY-One More Day, One More Conversation”이다. ‘하루 더 살아보자, 한 번

더 대화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오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자살 문제를 충분히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가운데 자살인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인식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문제를 외면하기 때문에 자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는 식의 기복적 신앙 태도가 오히려 절망과 우울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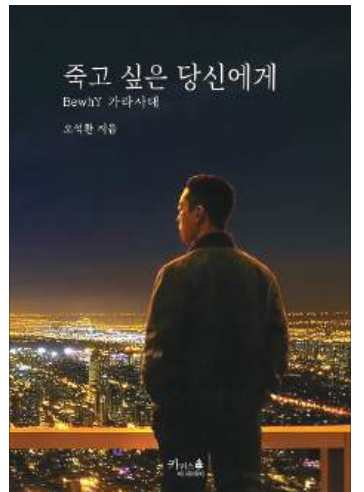
오 선교사는 자살예방을 위해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실존철학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키르케고르의 실존철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문제를 다룬다”며 “오늘날 자살 예방에도 이러한 실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직접 ‘카리스아카데미’라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키르케고르 관련 서적들을 출간해 왔다. 최근 펴낸 『죽고 싶은 당신에게-BewhY 가라사대』 역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래퍼 비아의의 노랫말 속 성경적 메시지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라고 소개했다. 오 선교사는 “자살은 정말 죽고 싶어서라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순간적인 충동 속에서 일어난다. 누군가 3시간만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줘도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자살예방운동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며 “예를 들어 교회 주보에 자살 예방을 위한 기도문 하나라도 실고, 성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코로나19 시기



오석환 선교사 / 도서-죽고 싶은 당신에게-BewhY 가라사대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발표한 점도 언급하며,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선교사는 AI와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자살예방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나 SNS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교회가 새로운 기술들을 선한 통로로 사용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바꿔서 매달 찾아 쓰고 싶어요

질문 문선영씨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72세 미스터 한입니다. 한국에서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뒤 홀어머니와 아들 둘을 데리고 39세에 미국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특성상 캐나다로 왔다갔다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들을 저희 어머니가 키웠다고 봐야겠죠. 고생만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얼마 하다가 보니, 저는 3년 전에 은퇴를 했고 벌써 어느덧 72세이고, 아들들은 다 커서 한명은 미국 군인이고 한명은 한국으로 돌아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가 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선영씨 유튜브를 보면서 처음으로 돈에 대해서 은퇴 자금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척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401k 같은 것은 없고 다니던 직장에서 펜션이 있어서 한달에 1800불씩이나 납니다. 여기에 소액연금으로 3780불이 나오니까 한달에 5,580불인데 제가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파트에서만 지내시는게 죄송해서 말년에 평생 소원인 어머니 집을 하나 사드렸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고 지금 그 집 모기지 페이먼트가 한달에 3,200 정도 됩니다. 5,580불 정도 받아서 세금 내고 여기에 모기지 내고 하면 생활이 좀 빠듯합니다. 집을 팔고 싶지 않은 이유는 집이 너무 편하고 어머니와 추억 때문에 저는 계속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군인인 큰 아들이 샌디에고 사는 데 저에게 오라고 하는데 저는 뉴저지가 제 고향 같아서 여기가 좋습니다. 아들이 자주 옮겨다니니까 그것도 저는 싫고 폐 끼치는 것도 싫습니다. 제가 생명보험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에들을 위해서 하나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얼마전에 서아 찾아 보니까 사망하면 29만불이고 지금 취소해도 29만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29만불은 별로 필요한 돈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29만불을 찾아서 혹시 어뉴이티를 가입할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에서 찾아서 어뉴이티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생명보험으로 옮길 수 있는지, 옮길 때 세금은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어뉴이티에 29만불을 찾아서 넣으면 내년부터 찾아서 쓰면 얼마씩이나 나올까요? 문선영씨 제 좀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국에서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자네들이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커서 정말 좋네요. 이제 선생님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되는데 지금 집을 파실 생각은 아니시고 생활비는 더 필요하신데 현재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이 있으시다는 상황이에요. 일단 질문 하신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에 넣을 수 있느냐.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여러가지 베네핏 때문에 사망할 때 까지 유지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지만, 만약 사망보상금으로 남겨 주는 것보다 현재 내가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런 경우 생명보험에 있는 캐시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겨서 나의 은퇴로 이차 받아 찾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보험에 있는 캐시밸류를 가지고 어뉴이티로 바꿀 때, 만약 이제까지 생명보험에 부은 프리미엄 보험료가 현재 캐시밸류 보다 더 크면 그냥 생명보험을 취소해서 이것을 세컨드 차인이라고 하는데 찾아 버려도 지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보험료 낸 것보다 캐시밸류가 더 자랐다 그러면 생명보험을 취소하고 돈을 찾으면 그때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생명보험에서 돈을 직접 찾지 마시고 생명보험에서 어뉴이티로 넘어가도록 서류 진행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선생님이 생명보험의 29만불을 내년부터 고정으로 찾아 쓰신다면 일년에 최소 26,518불씩, 한달에 2,209불씩이 100세까지 혹은 사망하실 때 까지 \$715,988 까지 평생 나오는 어뉴이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롱텀케어 상황이 되실 때 두 배로 나오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데 더 자세한 상담과 플랜은 앞으로 30년을 함께 할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4개 교회 은퇴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 내 나이, 지금부터 얼마씩 모아야 은퇴가 가능할까요?
- 현재 플랜으로 68세, 한달 은퇴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 우리 부부 롱텀케어를 준비한다면 시점은 어떻게 하나요?
- 401k나 IRA, 평생 은퇴 인입 어뉴이티 플로우 방법
- 부동산 펀드와 어뉴이티 비교책
- 생명보험에서 은퇴자금 쓰는법과 리빙베네핏, 롱텀케어

6/5 금 10:30, 나성 북부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6/16 화 10:3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6/23 화 10:30,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6/30 화 10:30, 윌넨 축복교회
20801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 참가문의: SYMOONMONEYTALK@GMAIL.COM 626-827-9599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이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및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DIRECT PAY PROGRAM 핵심 혜택



최대 40% 현금 환급

설치 비용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



세금이 없어도 OK!

비영리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수령



전기요금 절감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운영 예산 부담 감소



친환경 & ESG 실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및 견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확인하세요!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 T S SOLAR DESIGN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213-500-8000

✉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 ☑ 전문 엔지니어 상담
- ☑ 맞춤형 설계 & 시공
- ☑ 정부 인센티브 최대 활용
- ☑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